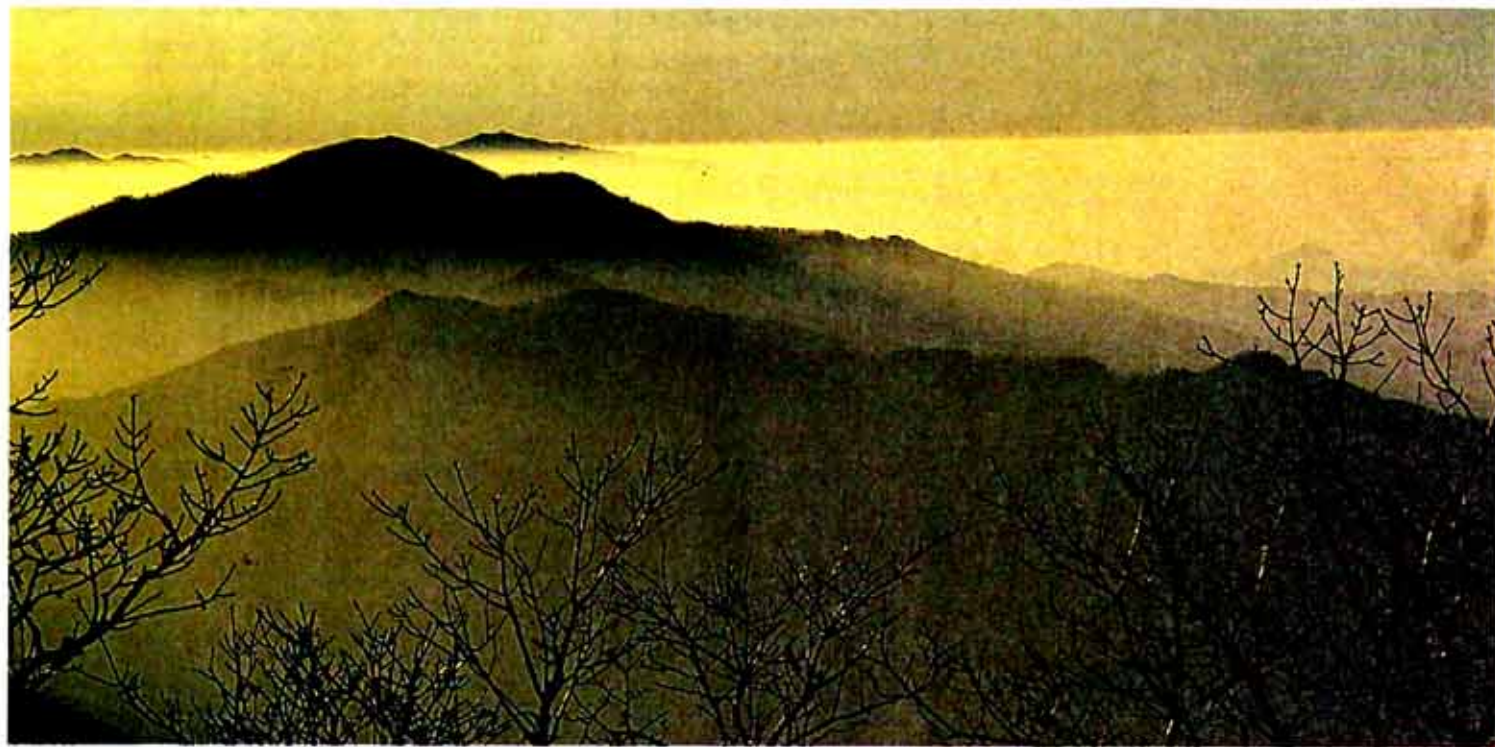


선달산에 겨울이 온다...하늘에서 땅으로



◇고치(재) 마루에 선 산신각, 소백과 태백의 두 산신을 함께 모시고 있다.



◇열은 이내 어린 백두대간의 아침, 선달산에서 동쪽으로 바라본 모습이다.

백두대간 속으로 (25)

고치→선달산→도래기재

겨울은 어디에서 오는가. 삭풍을 따라서 북에서 남으로? 지도에 가로로 구불구불한 선을 그려 놓고, 단풍이나 첫서리의 남하를 알리는 기상 통보권의 말을 따르자면 그렇다. 하지만 그걸 끝이 다 알는 것은 조금은 게으르거나 낮은 생각이다. 저기 설악산의 머리에 서리가 내려왔을 때도 아랫지쪽의 양지바른 곳에서는 삭부쟁이가 수줍은 웃음을 흘리기도 하고, 내장산에 단풍이 다 들기도 전에 지리산 꼭대기는 푸르름을 땅 속으로 저미기도 한다. 이렇듯 겨울은 수직으로 온다. 하늘에서 땅으로.

아직도 저릿거리면, 아침과 한낮을 번갈아 겨울과 가을이 한살림을 하고 있건만, 산 높은 곳엔 이미 겨울이 깊다. 두터운 옷으로 몇겹을 감싸고도 모자라 잔뜩 움송그린 몸을 이끌고 그 속으로 스며든다.

다 벗어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무들의 모습이 너무도 의연하다. 시간을 초월한 듯하다. 그 모습이 하도 높아 보이며, 성큼 다가와 감싸안고 숨결을 나누어 본다. 하지만 내 몸의 더위는 나무의 맥박을 느끼기엔 너무 두껍다. 다시 몸을 옮겨 키 작은 나무들의 가지를 훑어 본다. 앞날들이 손바닥을 간지럽힌다. 고밀도로 응축된 생명의 부피다. 그 속엔, 지난 봄과 다가올 새봄이 오롯이 함께 있다. 나무는 이렇게 영원한 오늘을 살 건만, 나는 왜 지난 시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가올 미래에 안절부절못하는 걸까.

마디지를 수 없는 시간의 본질을, 순간이 영원인 도리를 겨울나무에게서 배운다.

이번 산행은 소백과 태백 사이, 이른바 양백지간으로 불리는 고치(재)에서 선달산(1236m)을 넘어 도래기재까지다. 도성거리로만 25km에 가까운 꽤나 부담스런 거리이지만, 우뚝한 두 산을 이어주는 구슬에 충실하려는 듯 다수곳한 호수를 보이는 육산이므로 큰 두리는 없다. 하나 산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무새를 가다듬게 하는 위엄을 지니고 있다.

시작 지점인 고치(760m)는 경북 영주시 부석면과 충북 단양군 단상면을 이어주는 고갯마루로, 이 고을 사람들 특히 단상면 사람들에게는 성스러운 장소로 대

이내 속 선달산의 실루엣 신비롭기만 고치 산신각 소태백 산신 나란히 모셔

접을 받고 있다. 산에 신령함이 깃들여 있다는 믿음은 인류 보편의 정서이지만, 산의 품에 안겨 산을 넘나들며 삶을 이어온 산마을 사람들에 있어 고개란, 단 순히 한숨돌리고 다리힘을 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고치의 산신각에는 소백과 태백의 두 산신을 나란히 모시고 있다. 산이라는 지리 공간을 본질적으로 가 아니라 거대한 호원으로 파악한 백두대간의 인식 체계를 새삼 확인하는 순간 이어서 두 산신을 향해 넉죽 절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고치에서부터 키를 높이는 대간 길은 높이 950m인 첫 봉우리에 이를 때까지 허허로운 참나무 숲을 지나는 원비알이다. 여름 같았으면 극심한 고풍을 안겼을 오르막이 오히려 추위를 줄여주니 반갑기조차 하다. 역시 고풍에 대한 체감 지수는 상대적이긴 하다.

백두대간의 마루에서 발빛과 눈맞춤하는 것으로 또 하루를 잡는다. 내 삶의 나이에 얼마만큼의 흔적으로 남을지 모를 할나에 불과한 시간이지만, 산과 함께 잠들고 산과 함께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행복한 순간이다.

겨울 산 속의 아침은 태양의 위대한 힘을 실감케 한다. 미세한 높이의 변화에도 정직하게 반응하는 체감 온도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바위와 나무와 풀들의 표정은, 이 지구라는 생태계가 저원초적 에너지의 불덩어리에서 비롯됨을 알게 한다. 사족 삼아 한 마디 더 보태면, 생물계의 96%를 차지하는 1차 생산자로서의 식물은 '광합성'이라는 태양의 에너지를 머금은 일로 지상의 뜻 생명을 거두어 낸다.

다시 배낭을 꾸리고 선달산을 향한다. 잔 절음이 아니어도 한 나팔이면 족한 거라다. 그런데 아쉽게도 선달산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선달(先達)'이라는 한량개 넘치는 이름의 유래는 물론이거니와 그 흔한 전설 한토막도 간직하고 있지 않다.

어쨌든 극심한 오르내림 없이, 이제는 옛 기억을 거의 잃어버린 미내치와 재법 넓은 길을 열어놓고 있는 마구령을 지나 각곳산을 올라 북쪽으로 몸을 틀면 선달산이 눈앞에 걸린다. 이우는 저녁 햇살을 등에 지고 선달산을 오르자니 열은 이내 속에서 싹뚱뚱을 드러내는 산의 자태가 자못 신비롭다.

선달산의 조망은 백 빼어나지는 않다. 정상 주위로 사람의 키를 넘는 나무들이 둘러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 벌근 나뭇가지 사이로 다가서는 태백과 함백의 우람한 자태는 밤새 웅크렸던 몸을 활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선달산에서는 편안한 내리막길을 두어 시간 가면 백달령이다. 경북 봉화군 물아면과 춘양면을 이어주는 이 고갯마루에도 산령각이 있는데, 고치의 산신각과는 달리 '백달령 상왕산'을 모시고 있다. 이곳 또한 치성격들의 발길이 잦은 모양인지 산령각 안쪽에 과일 등숙의 재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큰 허물이 될 것 같지 않기에 상왕산에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과일 한쪽씩 달게 얻어 먹었다.

다시 성황신께 작별 인사를 올리고 옥돌봉(1242m)이라는 예쁜 이름의 봉우리를 넘는다. 이름 처세를 할 양으로 정상에 선 몇개의 바위를 빼면 동두령한 육산이지만 원없이 오르는 형국에서 은근히 힘이 든다.

옥돌봉에서 곧장 내려서면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과 경북 봉화군 춘양면을 넘나드는 도래기재다. 마침 고개를 넘던 트랙 질 칸에 몸을 싣고 춘양면의 서백마을로 향한다.

하산의 아쉬움보다는 다음에 오를 태백 생각에 벌써 가슴은 달뜬다.

글=은재학 기자
사진=은재학(사진작가)



◇선달산에서 백달령으로 향하는 길. 허허로운 백두대간의 숲길엔 벌써 겨울이 깊다.

새천년의 발원 - 손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등을 밝히자

스스로 등불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하여 남을 의지처로 하지 말 것이며,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하여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방동경]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공단등



팔모조립등



만월등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연꽃잎 제즈특어(특어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